

**From:** katie lee

**Sent:** Saturday, January 09, 2010 12:11 PM

**Subject:** 소원시 (所願詩) / 李御寧

## 소원시 (所願詩)

李御寧 作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3000 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 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겉 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애(千人斷崖)의 나락입니다.

비상(非常)은 비상(飛翔)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들린 기업인들에게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 주소서.

날게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 가는 가족에는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전에 기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 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